

DuPont, 나노섬유 한국투자 결정

이희범 장관과 1500만달러 투자 MoU 체결 ... 반도체 투자도 유치

미국 DuPont이 한국에 1200만달러를 투자한다.

노·사·정 합동 한국투자환경설명회(IR)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5월18일 미국 DuPont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DuPont은 나노섬유 양산설비를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범 장관은 미국의 대형 반도체 관련기업과도 2000만달러의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다.

회사명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미 한국에서 생산설비를 가동하고 있고 추가투자도 제조 및 R&D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1억달러의 투자계약을 맺고 집행을 미루고 있는 혈당측정기기업인 Agamatrix와 만나 조속한 한국투자 이행을 당부했다.

한편, 5월18일 뉴욕에서 이루어진 IR에서는 JP모건, 웰링턴 등 150여개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전략 등 한국을 아시아 하이테크 산업기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혁신주도형 산업정책의 비전이 소개됐다.

또 페어차일드, 애플, 게일 등 미국의 잠재투자가 50여명과 가진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산업경쟁력 강화에 동참하려는 노조의 변화 노력을 강조하고, 제프리 존스 암창 전 회장은 주한 외국기업 대표로서 한국의 경영과 생활환경을 소개했다.

<화학저널 2005/05/23>